



6월1일  
화요일

# 보 도 자 료



|    |        |    |       |    |       |   |          |
|----|--------|----|-------|----|-------|---|----------|
| 실국 | 농식품유통과 | 과장 | 강 종 철 | 팀장 | 김 영 석 | ☎ | 286-6430 |
|----|--------|----|-------|----|-------|---|----------|

## 전남도, 첫 추진 민간협업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전국 확산

-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로 전파....경북, 충북, 부산, 울산 등 이어져 -

전라남도가 전국 첫 민간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대한민국김치협회)와 협업으로 공동 추진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가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주목받으며 다른 사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4월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관련 회의에서 전남의 민간협업 모델이 우수사례로 채택되면서 경북, 충북에 이어 울산, 충남, 부산 등 광역시도로 확산되었다.

전남의 민간협업 모델은 원래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주관으로 추진해오던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전라남도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홍보와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위원회는 심사와 심의, 지정서 교부, 사후관리를, 그리고 시군과 도교육청,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 등이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하는 체계다.

이처럼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 영상과 식중균 검출 파동으로 소비자의 안전식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 김치산업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다.

또 전국민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수입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행위 근절,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던 외식업소가 국산으로 대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김치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배추, 마늘, 고추 재배농가 소득증대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9월까지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을 5,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 위상과 인지도도 많이 달라졌다.

대한민국김치협회 이하연 회장은 “2016년부터 민간 주도로 시작해 6년이 지났는데도 확산정착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전남도의 민관협업형 추진 모델이 알려지면서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국산김치자율표시제가 안심밥상 지키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터넷 뉴스에 “이제는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겠다”, “확실한 원산지 표시 방법이다”, “우리 김치 최고”, “민족의 자존심 김치를 지키자” 등 호평과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전남은 지난해말까지 도내 일반 식당 중 자율표시제 지정을 받은 곳은 담양 1개소에 불과했으나 제도를 도입한 지 불과 30일 만에 500여 개소가 신규 지정 신청을 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와 연계해 국산김치 할인행사, 자율표시 지정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국산김치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소비촉진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도가 전국 첫 민관협업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추진 모델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국산김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소비자가 음식점 밖에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제를 확대하는 한편, 대한민국 김치의 본고장 전남이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김치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있음)